

Airgas, 실린더가스 시장독점 강화

APC 이어 BOC의 포장가스도 인수 ... 미국시장 점유율 23%로 확대

공업용 가스 공급기업들이 미국 포장가스(Packaged Gas) 시장의 가치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Airgas는 2002년 Air Product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수많은 경쟁기업을 제치고 선두로 부상한데 이어 BOC의 미국 포장가스 설비 인수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Airgas는 8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포장가스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후반기에 BOC 인수를 마무리하면 점유율이 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raxair는 포장가스와 내구소비재(welding Housegoods) 부문에서 동시에 전체 미국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유일의 회사로 매출이 8억불달러, 시장점유율이 11%이며, 소형 독립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Linde와 Air Liquide는 미국 포장가스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을 더 중시하고 있다.

Linde는 매출 10억달러의 50%를 실린더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나, 포장가스 시장의 부진으로 다른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r Liquid는 1990년대 실린더가스 부문의 일부를 Airgas에 넘긴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핵심 수요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r Liquide는 캐나다와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시장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수용접(Specialty Welding) 부문처럼 실린더가스 사업 중 복잡하고 섬세한 부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Airgas는 실린더가스 시장의 안정적인 면을 높이 사 10년 동안 수십개의 독립기업 및 대기업의 일부 사업을 인수하면서 2000년 매출을 전년대비 2억달러 증가한 17억달러로 끌어올렸다. Airgas는 앞으로도 건강, R&D, 식품, 음료를 포함한 비실린더가스 사업에 치중할 방침이다.

Airgas의 2004년 매출목표는 20억달러이고, 2005년까지 10% 이상의 영업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BOC 인수와 더불어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20>